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 출범하지만...

행자부, 지원본부 구성 제때 승인 할 지 미지수 사무국 규모·발족시기도 문체부 승인 장담 못해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지만, 지원본부 구성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오후 2시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창립총회를 갖는다. 조직위는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법인으로 체육, 경제, 스포츠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다. 윤정현 광주시장이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대회운영 예산과 수익사업 등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대회 상징물 개발, 국제수영

연맹(FINA)과 교류, 홍보·마케팅 활동 등 대회 지원을 주도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위원장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안 심의·의결 등 안건이 처리된다. 조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무국을 발족해 대회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단 조직위는 출범하게 됐지만 광주시 전담부서 격인 지원본부 구성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부이사관(3급)을 분부장으로 2과, 4담당, 24명 규모의 지원본부 조직 승인을 제청했다. 시는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 신설이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

지만, 최근 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하면서 행사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사부가 시 노조의 전공노 문제로 지원본부 구성에 '편지'를 걸 경우 지원본부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사무국 규모와 발족 시기도 불투명하다. 시는 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35명 규모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승인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의 사무국을 발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상 5년전 조직을 갖는 다른 국제대회 준비과정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회 시, 선수촌 등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지사, 나주 호남원예고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18일 오후 창조농업 선도고등학교로 선정된 나주시 금천면 호남원예고등학교를 방문, 김찬중 교장(왼쪽 두 번째) 안내로 학교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영농철 부족한 일손 도움시다”

전남도, 내달 20일까지 ‘알선창구’

전남도가 양파 수확,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줘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0일부터 6월 20까지 1개월을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군인,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인 일손 돕기 분위기를 조성, 사회 각 계각층의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분청 농업축산식품국 직원 40여 명이 오는 27일 나주 문평면에서 양파 수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으로 실국과 사업

소 직원들이 6월 20일까지 일손 돕기를 펼친다.

이를 위해 도 본청과 시군,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남지역 군부대와 각급 기관단체 등에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촌 일손 돕기 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일손 돕기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농촌 일손 돕기 알선창구’에 신청하면 시기별로 연계해 일손을 지원받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 4개 분야 주력산업 지원서비스사업 기업 모집

전남도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주력산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 지원 기업을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4개 산업 분야로, 규모는 37억원이다.

그동안 기업이 사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신청서식 등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복수 프로그램 신청 시 유사 신청서를 수형 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기 정착 화순 바이오산업 적극 지원할 것”

국민의당 손금주 당선인(45, 나주·화순)은 광주·전남지역구 초선 당선인 중에서는 가장 젊다. 20대 총선에서 51.1%를 득표,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44.2%)을 이겼다.

나주 출신인 손 당선인은 광주교과와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군 제대 후 법 공부를 시작해 1998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한 그는 지난 2009년 변호사로 진로를 바꿔 대형 로펌인 윤춘에 합류했다. 방송통신 분야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뤘다.

-선거 후 한 달이 지났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

▲나주, 화순과 여의도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거 이후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최대한 참석해서 시군민께 당선인사를 드리고 귀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 또 당내에서는 당선자 워크숍, 초선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는데, 각오는.

▲키워드는 소통이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당의 정책방향과 소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제때에 정확한 보고’를 제1원칙으로 하겠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당의 운영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계 입문 계기나 배경은.



산자위·미방위 활동 희망

언론과 소통 국민 목소리 반영

우리사회 불합리 제도 개선

공정성장 기틀 발판 마련

▲세월호 사고와 위안부 합의 등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던 터에 마침 국민의당으로부터 영입 및 출마 제안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저의 고향인 나주·화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선거 승리의 원동력은.

▲시민권의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열원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1지방으로 산자위를 희망했다. 공정경제, 동반성장 기틀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내 한전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서다. 또 2지방으로는 미방위를 선택했는데 이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방송과 통신, ICT 산업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이 분야의 산업성과 혁신을 위한 법률자문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또 임기 내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작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과제는 ‘공정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공정한 경쟁 기반에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노력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 지역적으로는 나주 혁신도시가 조기에 잘 정착하고 화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과 농촌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호남정치 복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바람직한 호남정치의 방향은.

▲이전에 당선된 새로운 인물들과 지역 젊은 정치인들이 차세대 호남 지도자로 커가며 정체돼 있는 호남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호남정치복원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약수터 5년새 14곳 중 5곳 폐쇄

대부분이 무등산에

9곳도 수질 적합률 79%

광주지역 약수터 3곳 중 1곳 이상이 사실 물 기준에 미흡해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사용중인 곳도 수질 적합률이 80%를 밑돌고 있고 관리등급 우려나 주의 약수터도 상당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2년 14곳이었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은 수질 악화로 봉황대 약수터 폐쇄를 시작으로 2013년 꼬막재와 늦재, 2014년 화산마을, 지난해 평두메 약수터가 폐쇄됐다. 폐쇄 약수터는 모두 국립공원 무등산 내에 있는 약수터다.

5년만에 14곳 중 5곳이 마실 수 없는 약수터로 변한 셈이다.

사용중인 9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썩 좋지않은 점도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이 가운데 5곳이 무등산 내에 있다. 지난해 약수터 9곳 수질검사 결과 적합률은 79%에 불과했다. 아예 수량이 없어 채수(採水)를 못 한 경우까지 더하면 73%로 더 떨어진다.

주말과 휴일이면 수만명이 찾는 무등산 중머리재 약수터는 지난해(11번)와 올 들어(2번) 시행한 검사에서 단 번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중머리재 약수터는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 건물 2005㎡ ▶ 감정이 19억 5천 8백만원 최저가 13억 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 감정이 7억 9천 6백만원 최저가 5억 5천 8백만원 초등학교와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상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 감정이 30억 6천 5백 최저가 7억 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 2349㎡ ▶ 감정이 4억 최저가 6억 2천 7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 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 감정이 1억 1천 최저가 6천 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은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 대지 3293㎡ 건물 1495㎡ ▶ 감정이 17억 5천만원 최저가 12억 2천 5백만원 단층공장
- ★ 광주 북구 마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 감정이 12억 1천 6백 최저가 9억 7천 3백만원 현학원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 건물 152㎡ ▶ 감정이 1억 8천 6백만원 최저가 1억 3천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 9억 1천 5백만원 최저가 9억 1천 5백만원
- ★ 광산구 오산동 진곡산단내 대지 319㎡ ▶ 감정이 1억 9천 5백만원 최저가 1억 9천 5백만원 단독주택부지 기반시설완료
-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 177㎡ ▶ 감정이 2억 4천만원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 469㎡ 건물 1781㎡ 지하1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 매매 15억 (용7억 4천 포함)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 5천 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 매매 13억 5천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 매매 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 매매 40억 (보증금 2억 3천, 월 2천 7백)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 422㎡ 6층 모텔 객실 28개 최신리모델링 ▶ 매매 8억 (용 4억 8천 추가 3억 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승덕고인근 대지 222㎡ 건물 400㎡ 원룸 15개 안집방 3개 ▶ 매매 6억 3천 대출 2억 포함 보증금 4천 월세 5백
- ★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해원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